

■ 권중달 교수의 역사칼럼(67)

察往考來

찰 왕 고 래

지난 일을 살피서 올 일을 고찰한다.



권 중 달 (중앙대 역사학과 명예교수, 삼화고전연구소 소장)

요즘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문제를 가지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일어날 일을 생각해 보면 의사가 부족하여 10년 뒤에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힘들어 기피 하는 외과나 소아과 혹은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한 지원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말로 10년 뒤에 의사 수가 모자라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인가? 아니면 현행대로 두어야 10년 뒤에도 의료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추측하면서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연전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 (Unintended Consequences)'라는 책이 나왔다. 이 책에서는 미국이 1775년에서 2007년까지 200여 년 동안 미국이 참전한 8번의 전쟁을 시작할 때의 생각과 끝나고 난 뒤의 결과를 비교한 책이었다. 끝난 다음의 결과는 처음 시작할 때의 생각과 달랐다.

미국은 미영전쟁, 미-멕시코전쟁, 미-스페인전쟁, 1차대전, 2차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등 시작하면서 목표도 있었고 예상하는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끝나고 보면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전쟁을 시작할 때 머리 좋은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며 좋은 결과를 예상하였겠지만 빗나갔으니 역시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미래에 벌어질 일을 간 날짜까지 맞추기는 어렵지만 변화의 경향성(傾向性)을 짐작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전에도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자 하였던 것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였다.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진 천체 현상은 하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를 잘 분석하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1203년 금(金)나라에서는 평소와 다른 천문현상이 나타났다. '9월 갑진일(9일)에 신시(申時)와 유시(酉時) 사이에 하늘이 운동 크게 붉은색이 되었고, 이 모습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될 즈음까지도 그러하였다.' 이처럼 특별한 상황이 나타나자 금(金)

의 재상은 신안(信安) 출신의 두시승(杜時昇)이라는 사람이 박학(博學)하며 천문을 잘 안다고 하면서 금의 황제인 장종(章宗)에게 천거하면서 그는 크게 진용(進用)할 만하다고 하였다.

이때 두시승은 친한 사람에게 이 천문현상을 해석하여 말하였다. '내가 보건대 정북 쪽에 붉은 기운이 있는데 마치 피와 같으니 천하는 크게 혼란을 맞게 되었다. 혼란하게 되면 남북이 마땅히 합쳐져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세상은 영고성쇠(榮枯盛衰)와 가득 찼다가 비워지는 것이 순환(循環)하여 그 실마리가 없으니 지나간 일을 잘 살피서 다가올 일을 생각해야 하지만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였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금왕조는 몽고의 징키스칸에게 멸망한다. 뿐만 아니라 다시 45년이 더 지난 다음에는 남송 조차 몽고에게 멸망하고, 유아시아 대륙은 모스크바, 이란 이라크에서 중앙아시아를 지나 극동의 고려까지 모두 몽고의 지배에 들어가는 대몽일제국의 시대가 되었다.

정말로 1203년의 천문현상이 이러한 것을 예고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 두시승이 이러한 상황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두시승은 분명하게 세상은 영고성쇠로 변하여 크게 변하는 세상이 올 것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경향성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누가 이것을 하겠는가?'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는 바로 탁월한 환난을 피하여 조용히 황하를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조용히 송산(嵩山)과 낙산(洛山) 속으로 들어가 은거(隱居)하였다. 속세에서 벗어나려고 한 셈이다.

혹자는 어려움이 닥칠지 알았다면 왜 직접 뛰어들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쳤느냐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기록을 보면 풍속(風俗)이 사치해졌고 기강이 크게 파괴되었다. 라고 되어 있으니 두시승은 아마 사회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천문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금왕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할 것을 짐작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앞의 천문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계기로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 아닐까? 그는 모든 왕조가 기울어지는 상황은 사회

에 사치한 풍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사치한 풍조만 건전하게 돌릴 수만 있다면 금왕조의 기울어짐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실학 두시승이 장종에게 가서 사치한 풍속을 고쳐야 하니 황궁의 황후부터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하였다면 그것이 실행할 수 있었겠는가? 사치란 망해 보기 전에 고치기 어렵다는 인간의 속성(屬性)을 파악한 그는 역사의 대변전의 소용돌이가 있기 전에는 고쳐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두시승이 송산으로 들어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다시 의학과 정원 문제로 돌아가 보자. 요즘 의사 가운데 인간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고 돈벌이에 눈을 뜬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돈 좀 있다면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유행이라는 것이다. 많은 돈을 내고 성형하고자 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고, 그래서 의사는 그쪽으로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우리 사회의 사치와 쾌락주의를 고치지 않고 정원을 늘려도 안 좋게 마냥가지지 않나. 이는 그대로 두면 망하기 전에는 고쳐지지 않을 병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경계가 인간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가르친 대로 잘 배운 사람들이다. 경제 우선주의 교육은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인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문학, 역사, 철학 같은 인문학이 외면 받게 하였다. 의사, 변호사 같은 돈 잘 버는 직업군을 길러내는 대학의 교과과정은 인문학이 끼어 들어가지 못하였다. 경영, 공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하기는 정신세계를 가르치는 종교계도 예외는 아닌 듯하니, 어디 가서 돈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배우거나 생각할 시간이 있겠는가?

의과대학 정원문제는 이대로는 해결될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의학, 법학, 공학 등 어느 분야에서든 인문학에 대한 소양이 없으면 도태되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나라를 구할 수 있고 의과대학 정원문제도 저절로 해결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할 사람이 있을까? 길이 있어도 가지 않으니 다시 한 번 두시승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권태정 전 중앙일보뉴욕지사장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

집가, 화목할 화, 일만만, 일사, 이룰 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 和는禾(벼)와口(입)를 합친 글자로 家和는 집안 식구 모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 되고 가족 모두 함께 밥을 먹을 정도로 잘 어울리면 안 풀릴 일이 없다는 뜻

이다. 출전은 명심보감 治家篇(치가편)이고 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자효쌍친락 가화만사성)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에서 유래되었다.

苛斂誅求(가렴주구)

가혹할 가, 거둘 렬, 벌주, 구할 구.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이라는 뜻이며 출전은 구당서(舊唐書)이고 비슷한 말로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더 무섭다가 있다.

부산등산회 정기총회 등산기



부산중흥회 산하 등산회(회장 권영인)는 지난 1월 24일 10시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에 모여 정기총회를 겸한 등산에 나섰다. 운산(중원) 명예회장, 송암(성용) 고문, 서암(영인) 회장을 비롯해 회원 15인이 동참한 이날 산행 코스는 부산대역에서 금정구 부곡동 대동대학 뒤편 운산을 타고 고나가 오륜터널을 넣고, 다시 부영산을 돌아서 회동호를 끼고 상현마을로 이어진다. 운산(輪山-317m)은 산 모양이 둥근 바퀴 같아 붉은 이름으로 일명 구월산인데 이 역시 '구르다'가 '구불다'→'구을다'에서 변화된 말로 둥근 산 모양을 뜻한다. 겨울 산행은 뛰니 뛰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늘진 곳은 잔설과 숨은 빙판으로, 양지쪽은 밤새 돋은 서릿발이 녹아 곳곳이 미끄럽기 때문이다. 추위 또한 경계 대상이다. 땀 식힌다고 몸을 지나치게 드러내면 자칫 감기에 걸려든다. 각설하고 산중허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오솔길을 걷는데 문득 뒤쳐진 쪽에서 낙오자가 생겼다는 연락이 왔다. 갈래길에서 어긋난 모양인데 다행히 한 방향이라 안심이다. 만날 곳을 전화로 알리고 다시 행군이다. 경계가 불분명하나 운산을 지나 도착한 부영산(175.7m)에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오륜대가 있다. 해운대, 물문

대, 태종대, 신선대와 함께 부산 5대(五臺)로 꼽는다. 산등을 타고 이리 구불 저리 구불하다 보니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인다. 어느새 회동호수 가까이에 왔다. 호반을 따라 한참을 또 걸어서 목적지 상현(上賢)마을에 다다랐다. 상현은 오래 전 아랫마을에 신선이 된 현인이 살았다 하여 '현리'라 불렀는데, 그 뒷마을이란 뜻이다. 다양한 음식점이 즐비하며 특히, 종교단체 이름 흡사한 '선유도원'이란 베이커리-카페가 제법 규모를 갖춘 맛집으로 소문나 있다. 시계가 오후 1시를 가리키자 낙오된 대원이 도착한다. 점심으로 주문한 옷 백숙을 준비할 동안 정기총회가 시작된다. 회의는 자료에 따라 회장 인사, 격려사, 경과보고, 감사 보고, 결산 순으로 이어진 뒤에 서암(영인) 회장의 제안으로 "올해는 더 많은 족친이 등산에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 된다. 때맞추어 오늘 생신을 맞은 송암(성용) 명예회장을 위한 생일 케이크와 축하 노래로 분위기를 돌우고, 상현 족친이 가져온 양주까지 곁들여 흥을 돋우니 식사는 뒷전이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일렀건만... 수필가 권채영

안동권씨 대종회 장학금 구좌 모집 안내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매년 자라나는 우수한 후학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능동장학회와 더불어 뜻있는 개인이나 문중 및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구좌를 후원받아 그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오니 보다 많은 후손들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족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구좌 신청 :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4
- 신청 일시 : 2024년 2월 1일 ~ 3월 31일
- 후원 금액 : 1구좌 당 100만원(해당 장학금 수여는 후원자 명의로 지급)
- 지급 시기 : 5월 정기총회 시
- 계좌번호 : 농협 301-0343-6793-41 예금주 : 재단법인 능동장학회
- ※ 특히 장학금 구좌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문중 및 기업체는 장학기념비 설립 시 그 이름을 기념비에 새겨 영원히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구좌	금액	비고
권○○	1구좌	100만원	
○○문중	3구좌	300만원	100만원씩 3명에게 지급
업체명	10구좌	1000만원	100만원씩 10명에게 지급

※ 기타 문의사항은 대종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권씨대종회